

# 새만금 통합 방안 먼저 제시하라

###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 촉구 성명서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명일)는 25일 제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확실히 통합 방안 제시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3



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 업무를 유지, 새만금과 관련한 공동 사업에는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고 했다.

이어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

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하는 사이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1일 성명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으로 새만금을 화합의 땅, 미래를 견인하는 땅,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땅으로 주장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의회에서도 4월 18일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3개 시·군의 의원들 중심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스쿨팜에서 동심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다

### 익산 초등 12곳 스쿨팜 운영

농·수확 선도도시 익산시가 스쿨팜(학교 텃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초등학생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의 재배부터 수확, 음식 조리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으로 도시지역 초등학교 내 농작물 체험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의 식재부터 재배, 수확, 음식 조리까지의 체험을 통해 농업이 음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익산시 교육지원청과 지역 초등학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쿨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리마한초등학교, 익산아양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농업체험장을 조성·운영한다.

시는 상추, 감자, 토마토, 옥수수 등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유휴부지나 자투리 공

간에 텃밭을 조성한다.

학생들이 이 곳에서 텃밭 상자를 이용해 버 모내기 체험과 전통 방식의 벼 수확 체험 등 다양한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녹색힐링문화도시 조성 앞장

백제왕도 익산시가 '왕도정원'을 내 집안 속 정원문화로 확산해 녹색힐링 문화도시조성에 앞장 선다.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익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조성 교육인 '왕도정원 가드닝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왕도정원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공간을 가꾸고 관리

하는 대표적인 경관조성 사업이다.

'왕도정원'의 품격을 시민들이 쉽게 표현 할 있도록 생활원예와 플랜테리어, 원예식물의 기능 및 재배관리, 공중 및 벽걸이용 식물 종류 및 디자인 등에 관한 교육을 집중한다.

또 식물의 병충해 방제 및 정원 유지관리, 테라리움 원리 및 디자인 식물을 활용한 공간별 플랜테리어 사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8일부터 7월8일까지 총 8주 동안 진행,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나눔 활동도 포함된다.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선진지 답사의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 대상은 익산 시민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063-859-678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특산품 지정·홍보·지원 활성화 제언

###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5일 제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군산시가 해야 할 군산시 특산품 지정, 홍보, 지원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특산품에 울의 장어, 꽃게장, 참박대, 참조기, 흰찰쌀보리, 신동진쌀, 단팻빵 이렇게 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7가지 품목은 특산품 지정이 되어있을까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에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다"며 "군산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특산품, 특산물이라 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퀄리티를 유지시

켜 누구나 인정받아야 한다"며 "군산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곳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동시의 경우, 2006년부터 특산품 지정을 해오고 있지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48개소로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안동한지, 안동시파 등이 특산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간고등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안동간고등어를 떠올리며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에는 부연설명 이 필요했는데 왜 군산시는 군산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해내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 공동상표 새들군산의 경우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이다"라면서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니 더군다나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다"라고 꼬집었다. /군산=이재훈 기자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도입하자"

### 김영자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25일 제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함께하는 삶,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총 11만4,276 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2010년에는 23.9%였으나, 2020년 35.6%, 2021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란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병원내 접수 및 수납지원, 진료 동행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으로 "서울 시에서 2021년 11월부터 1인가구 병

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1만772명이 이용하며 평균 만족도 93.9%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3월부터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했고, 성남 시도 시작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은 민간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가족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속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군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돌봄SOS, 노인맞춤돌봄을 통해 일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노인가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보건 지출은 12만 3,000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4.4% 수준으로 다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본인의 몸을 돌보는데 취약하며, 보건 지출 중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31.2%의약품 구입이 23.5%로 입원보다 2%의 비중을 이용하는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집중교육

군산시보건소가 봄철 발생률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일종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이하 SFTS)'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한다.

25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14개소 경로당을 찾아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28일 외촌경로당, 교동경로당, 5월 3일 해곡 경로당, 신당 경로당 5월 10일 서지 경로당, 강정 경로당 5월 17일 외근 경로당 문화 경로당 5월 24일 등동 경로당 신촌 경로당 등 매주 수요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12일, 18일 2일간 원나로 경로당 옥동 경로당, 원장상 경로당, 군둔 경로당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선정

익산시가 '인문학 마거리 빛'으로 익산의 무형유산 콘텐츠를 가치를 높인다.

25일 시에 따르면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사업에 '박걸리'와 '인문학'을 주제로 국비 2천만 원을 확보했다.

무형문화재 어울아띠는 국가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한 전승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무형문화재 공동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화원은 조선시대 명주로 가람 이병기 선생의 가문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전북 무형문화재 '여산 호산춘'의 스토리를 이어 받아 '박걸리'와 함께 삶을 빛어가는 '인문학 프로그램' 주제로 공동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친 이번 수업은 우리 지역 무형유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